

가정 및 기관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사회적 행동 격차 - 부, 모 양육행동의 군집 예측 가능성 -*

은 선 민¹⁾ 권 소 정²⁾ 이 강 이³⁾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사회적 행동이 가정 및 기관 맥락에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에 주목하여, 가정-기관 간 사회적 행동의 격차를 바탕으로 군집을 나누고자 하였다. 먼저 유아의 성별 및 출생순위에 따른 군집 간 차이를 살펴보고, 부, 모의 온정적 및 통제적 양육행동이 군집 유형화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가정-기관 간 유아의 사회적 행동 격차에 따라 군집분석을 시도한 결과, 유아는 '전반적 유능형', '가정-유능형', '기관-유능형', '전반적 저하형'의 네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전반적 유능형'을 기준으로,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낮을수록, 남아는 '전반적 저하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여아는 '가정-유능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높을수록, 남아는 '기관-유능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여아에게는 이러한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온정적 및 통제적 양육행동이 낮을수록 남아와 여아 모두 '기관-유능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유아의 사회적 행동특성은 언제나 고정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 및 기관과 같이 서로 다른 속성을 지닌 맥락에서 상이할 수 있음을 밝혔다. 또한 부, 모의 양육행동은 유아의 사회적 행동에서 나타나는 '개인 간 차이'를 넘어 맥락에 따른 '개인 내 차이'를 예측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가정-기관, 사회적 행동 격차, 군집분석, 온정적 양육행동, 통제적 양육행동

* 본 연구는 2017년 한국인간발달학회 & 학부모정책연구센터 공동주최 추계학술대회 포스터발표 논문임.

1)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2) 교신저자 :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사과정(E-mail: thwjd0905@snu.ac.kr)

3)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및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겸무연구원

I. 서 론

현재 우리나라 만 3-5세 유아의 89.6%가 보육 또는 교육기관을 이용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5). 이들의 하루 평균 기관 이용시간은 약 7시간으로, 기관 생활은 가정에서의 생활만큼이나 유아에게 보편적인 경험이자 중요한 사회적 맥락이다. 유아는 가정과 기관이라는 사회적 맥락에서 부모, 교사, 또래와 같은 타인과 상호작용하며 사회적 행동을 발달시켜간다. 사회적 행동이란, 자신이 속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요구되는 사회적 기술뿐만 아니라 사회의 규준에 따라 자신의 정서와 행동을 적절히 조절하고,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을 의미한다(이혜원, 2005; Hubbard & Coie, 1994; Raver & Zigler, 1997; Rose Krasnor, 1997). 사회적 행동이 발달된 유아는 타인과의 원만한 상호작용을 통해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교육기관에서의 적응에도 더 높은 성과를 나타낸다(Dishion, Eddy, Li, & Spracklen 1997; Sebanc, 2003). 이는 또한 이후의 학업적 성취뿐만 아니라 성인으로서의 사회적 적응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으로 지목된다(Raver & Zigler, 1997)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반면, 사회적 행동이 미흡한 유아는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며, 또래에게 거부되는 경험이 많아 이후의 삶에서 또한 부적응적 행동을 보일 우려가 높다(Crick, 1996).

사회적 행동은 유능성, 능력, 전략, 기술(김성혜, 박찬옥, 2010; 배울미, 조광현, 2017; 최민수, 김설화, 2017) 등의 측면에서 폭넓게 다루어지는 개념으로, 이를 측정하는 방법 또한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Gresham과 Elliott(1990)은 자기통제(self-control), 주장성(assertion), 협력성(cooperation), 책임성(responsibility)의 네 가지 차원에서 사회적 행동을 측정하였다. 자기통제는 자신의 정서와 행동을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지·사회·정서적 능력의 개인차를 야기하는 주요 요인(정진나, 2017)으로서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아왔다. 주장성은 타인과 공유된 활동에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행동을 포함(Braungart-Rieker, Garwood, & Stifter, 1997)하는 것으로, 또래관계 형성에 긍정적으로 기여(이한중, 2015)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력성은 자신의 것을 나누고 타인을 돕는 행동을 의미(정현빈, 2010)하며, 부모, 교사 및 또래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유아가 필수적으로 함양해야 하는 능력이다. 마지막으로 책임성은, 유아가 스스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충실히 수행하고, 공동체의 규칙과 약속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정다우리, 2015).

한편, 유아기 사회적 행동과 관련된 대다수의 선행연구(나지혜, 2012; 도형미, 김소연, 2015; 최희정, 2011)는 사회적 행동의 개인차와 개인차를 야기하는 요인에 주목하는 특성론적 관점을 취하고 있다. 특성론적 관점에 따르면, 사회적 행동은 개인의 경험, 기대, 가치관, 목표, 자기조절 전략 등에 의해 결정되어 비교적 오랜 기간 변동 없이 지속되는 요인(Aizen, 1987)으로, 행동특성에는 ‘개인 간(inter-individual)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같은 개인이라 할지라도 상황의 변

화에 따라 다른 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개인 내(intra-individual) 차이’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녔고, 이에 상황 또는 맥락에 따라 변화하는 개인의 행동특성에 주목한 상황론적 관점이 제기되었다. 상황론적 관점을 취하는 연구자들에 따르면 인간의 행동은 개인적 특성보다 환경에 의해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 특성론적 관점에 따를 때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어떻게 행동할지를 예측할 수 있었다면, 상황론적 관점을 취함으로써 특정 맥락 내에서의 일관성, 다른 맥락 간의 비일관성에 주목해볼 수 있다(Rose, 2016). 즉, 상황론적 관점은 개인적 특성에 따라 유형화되는 행동패턴을 넘어서 맥락에 따라 보다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개인의 행동특성을 살펴보게 한다. 가정, 가정에서 유아가 문제행동을 보이더라도 교실에서는 그러한 행동이 관찰되지 않을 수 있다(김종훈, 성지현, 2014). 즉, 동일한 유아일지라도 그들이 처한 상황·맥락에 따라 사회적 행동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Hartman, Rhee, Willcutt, & Pennington, 2007)을 고려해야 한다.

사회적 맥락은 구성원들 간에 상호 합의된 상황에 대한 정의와 그 정의에 기반을 둔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구성된다(Mehan, Cazden, Coles, Fisher, & Maroules, 1976). 이러한 사회적 맥락은 매 순간 변화할 수 있으며, 맥락의 변화마다 구성원의 역할은 재정립되고 다른 행동의 패턴을 만들어낸다(Cole, Engstrom, & Vasquez, 1997). 유아들 역시 가정과 기관이라는 서로 다른 사회적 맥락에 놓이게 되고, 맥락에 따라 다른 상호작용을 경험하고 다른 역할기대를 받게 되므로, 이들의 친사회적 행

동 및 문제적 행동은 상이할 수 있다. 따라서 한 유아의 사회적 행동이 유능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맥락에서 나타나는 행동특성의 폭넓은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Waters & Sroufe, 1983). 부모, 교사 또는 임상 의와 같이 하나의 특정 맥락에 국한된 정보제공자는 유아의 행동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며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므로, 다양한 맥락에 놓인 다양한 관찰자들로부터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정이은, 2007). 유아의 상호작용 대상인 부모와 교사의 조망은 물리적·기능적·관계적으로 매우 상이한 가정 및 기관의 맥락적 특성을 반영하므로, 유아의 사회적 행동에 대한 ‘개인 내(intra-individual) 차이’를 평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유아 간 사회적 행동의 개인차에 주목하고 있어,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유아의 사회적 행동 격차를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선행연구(김영선, 이숙, 2015; 김은숙, 2013; 도형미, 김소연, 2015; 홍종원, 최영희 2015)를 바탕으로 유아의 사회적 행동 격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 내적 특성 및 가정환경 특성에 주목할 수 있다. 먼저 사회적 행동의 개인차를 야기하는 개인적 특성으로는 연령, 성별, 출생순위, 지능 등이 주목받아 왔다. 그 중에서도 유아의 성별 및 출생순위는 사회적 행동의 개인차를 유발하는 변인으로써 다수의 연구자로부터 탐색되어 왔으나 그 결과가 일치되지 않고 있다. 그 예로, 성별에 따라 대체로 여아가 남아보다 사회적 유능감이 높다는 연구결과(강혜연, 2010; 김은숙, 2013; 박성연, 도현심, 1993;

Falbo & Poston, 1993)와, 성별에 따라 사회적 행동 수준에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형미 & 김소연, 2015; 최희정, 2011)들이 혼재해있다. 출생순위에 따라서는 외동과 만이는 부모와의 보다 빈번한 접촉 빈도 및 기간으로 인해 둘째 이하의 자녀와 사회적 행동 수준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결과(Snow, Jacklin, & Maccoby, 1981)와, 둘째 이하의 자녀들이 일찍부터 또래관계의 경험이 발달하므로 외동이나 만이보다 높은 사회성을 나타낸다는 반대의 결과(Claudy, Farrell, & Dayton, 1979)가 혼재한다. 이렇듯 성별과 출생순위는 유아의 사회적 행동의 개인차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 특성이므로, 서로 다른 맥락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행동패턴 또한 유의하게 차이를 야기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부모의 양육행동은 신체, 사회, 정서, 인지 등을 아우르는 자녀의 전인적인 발달에 가장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유아는 최초로 맺는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사회화의 기초를 형성하며,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위한 다양한 행동 패턴을 학습해간다(나지혜, 2012). 부모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사회적 행동 발달의 인과관계는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일관적으로 보고된 바 있다. 온정적이고 반응적인 부모의 양육행동은 유아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술을 발달시키는 반면, 부모가 지나치게 허용적이거나 비일관적일 경우, 자녀의 문제행동 발생을 증가시킬 위험이 있다(고윤희, 김숙령, 2013; 김종훈, 성지현, 2014; 박서영, 박성연, 2007; Campbell, Shaw, & Gilliom, 2000; Shaw, Gilliom, Ingoldsby, & Nagin, 2003; Shaw,

Owens, Giovannelli, & Winslow, 2001). 그 중에서도 특히 충분한 애정과 관심을 통한 부모의 온정적인 양육행동 뿐만 아니라 적정 수준의 한계와 규칙을 설정하여 행동을 통제해주는 부모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이는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으로 개념화되는데(채영문, 2009; 홍종원, 최영희, 2015), 선행연구는 동양 또는 서양문화권에 따라, 혹은 같은 문화권 내에서도 사회경제적 지위나 지역사회 등의 상황에 따라 부모의 통제적 양육이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서 갖는 의미가 달라짐을 보여준다(김영선, 이숙, 2015; Chen, 1998). 이는 상황 및 맥락에 따라 부모의 양육행동이 유아기 자녀의 상이한 사회성 발달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한편,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양상과, 양육행동이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채영문(2009)의 연구에 따르면,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가 온정적인 양육방식을 취할 때 유아가 친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보였다. 그러나 유아가 보이는 사회적 방해성에 대해서는 어머니는 통제적일수록, 아버지는 온정적일수록 방해성이 낮아졌다. 또한 유아의 사회적 불안성에 대해서도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어머니의 경우 온정적 또는 통제적 양육 모두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점으로 미루어볼 때, 부모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에 있어 부와 모의 영향을 구분하여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존 연구는 유아의 사회적 행동에서 나타

나는 개인차와 이를 야기하는 영향요인을 밝히는 것에 집중해 왔으나, 동일한 유아일지라도 맥락에 따라 상이한 행동을 나타낼 수 있음(김종훈, 성지현, 2014)을 간과하였다. 하지만 유아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정과 기관은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일과, 상호작용 대상, 기대되는 역할 등에서 매우 상이한 맥락이므로, 유아의 행동이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가정과 기관이라는 두 맥락에서 보고되는 유아의 사회적 행동 양상과 행동의 격차를 야기하는 요인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정 및 기관 맥락에서 다르게 나타나는 유아의 사회적 행동 격차와 그 양상을 바탕으로 한 군집을 나누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유아의 성별 및 출생순위에 따른 군집 간 차이를 살펴보고, 부, 모의 온정적 및 통제적 양육행동이 군집 유형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가정 및 기관에서 보고되는 유아의 사회적 행동 수준은 어떠한가, 맥락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가정 및 기관에서 보고되는 유아의 사회적 행동은 어떠한 유형으로 분류되는가?

<연구문제 3> 가정 및 기관에서 보고되는 유아의 사회적 행동 군집은 성별 및 출생순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부, 모의 온정적 및 통제적 양육행동은 가정 및 기관에서 보고되는 유아의 사회적 행동 군집 유형화에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하는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for Korean Children, PSKC) 조사의 7차년도(2014년)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한국아동패널 조사는 2008년에 출생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실시된 제 1차년도 조사를 시작으로 매년 아동의 성장 과정을 추적한 것으로, 7차년도 조사 시 대상 아동의 연령은 만 5세에 해당한다. 학령기 전이를 앞둔 만 5세는 행동적 자기규제 능력이 안정(Denham, 1998)되어 자신만의 행동 양식이 어느 정도 형성되는 시기로서, 맥락에 따른 사회적 행동의 격차를 살펴보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7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전체 1,620 패널 중 결측치를 제외한 1,104 패널을 최종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분석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연구대상 유아 1,104명 가운데 남자는 569명(51.54%), 여자는 535명(48.46%)로 비슷한 성비를 보였다. 유아들의 출생순위는 첫째 510명(46.2%), 둘째 461명(41.76%), 셋째 이상은 133명(12.05%)으로, 대부분 첫째 혹은 둘째 자녀에 해당했다. 유아들의 형제자매 수를 살펴보면 1명의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가 712명(64.6%)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2명인 경우 22.2%, 형제자매 없음(10.6%), 3명 이상인 경우 2.6%의 순서를 차지했다. 이어서 부모의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에서 35~40세 미만이 가장 많은 비중

표 1.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 = 1,104)

변수	구분	빈도 (%)
아동 특성	성별	남아
		569 (51.5%)
	여아	535 (48.5%)
	출생순위	첫째
		510 (46.2%)
		둘째
		461 (41.7%)
	형제자매수	셋째 이상
		133 (12.1%)
		없음
부모 특성	아버지 연령	117 (10.6%)
		1명
		712 (64.6%)
		2명
		245 (22.2%)
	어머니 연령	3명 이상
		29 (2.6%)
		30세 미만
		3 (0.3%)
		30~35세 미만
		111 (10.1%)
	아버지 교육수준	35~40세 미만
		477 (43.3%)
		40~45세 미만
		409 (37.1%)
		45세 이상
	어머니 교육수준	101 (9.2%)
		30세 미만
		16 (1.5%)
		30~35세 미만
		280 (25.4%)
	가구소득	35~40세 미만
		553 (50.2%)
		40~45세 미만
		224 (20.3%)
		45세 이상
		29 (2.6%)
기관 특성	기관 유형	고등학교 졸업 이하
		299 (27.2%)
		2,3년제 대학 졸업
		236 (21.4%)
		4년제 이상 대학졸업
	기관 유형	460 (41.8%)
		대학원 재학 이상
		106 (9.6%)
		고등학교 졸업 이하
		322 (29.2%)
	기관 유형	2,3년제 대학 졸업
		309 (28.0%)
		4년제 이상 대학졸업
		414 (37.6%)
		대학원 재학 이상
		57 (5.2%)
기관 특성	기관 유형	300만원 미만
		165 (14.9%)
		300~400만원 미만
		255 (23.1%)
		400~500만원 미만
	기관 유형	259 (23.5%)
		500~600만원 미만
		198 (17.9%)
		600만원 이상
		227 (20.6%)
기관 특성	기관 유형	어린이집
		344 (31.2%)
		유치원
기관 특성	기관 유형	743 (67.3%)
		반일제 이상 학원
		17 (1.5%)

을 차지했다(부 43.3%, 모 50.2%). 아버지의 경우 40~45세 미만(37.1%), 30~35세 미만(10.1%), 45세 이상(9.2%), 30세 미만(0.3%)의 순서를 차지했다. 어머니의 경우 30~35세 미만(25.4%), 40~45세 미만(20.3%), 45세 이상(2.6%), 30세 미만(1.5%)의 순서로 뒤를 이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4년제 이상 대학 졸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부 41.8%, 모 37.6%), 고등학교 졸업 이하(부 27.2%, 모 29.2%), 2, 3년제 대학 졸업(부 21.4%, 모 28.0%), 대학원 재학 이상(부 9.6%, 모 5.2%)의 순서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가구소득은 대체로 균등한 분포를 보였다. 유아들이 재원 중인 기관유형은 유치원에 재원하는 유아가 743명(31.2%)으로 가장 많았고, 어린이집 344명(31.2%), 반일제 이상 학원 17명(1.5%)의 순서로 재원 비중이 높았다.

2. 측정도구

부, 모의 양육행동(온정적, 통제적)

부, 모의 온정적 및 통제적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조복희 등(1999)의 문항을 바탕으로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자체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부, 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고 표현할 수 있게 한다.” “아이의 행동이나 아이가 성취한 일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인다.”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부, 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은 “나는 아이가 잘못 했을 때는 반드시 벌을 주고 반성하게 한다.” “나는 지켜야 할 규칙, 규율을 세우고 아이가 지키도록 한다.”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6문항으로 구

성된다. 이 척도는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리커트형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매우 그렇다 [5점])로 측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하위영역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지필식 설문 조사를 통해 어머니, 아버지의 응답을 각각 수집하였다. 부, 모의 각 양육태도에 대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를 분석한 결과, 아버지 온정적 양육행동의 신뢰도 계수는 .87, 아버지 통제적 양육행동의 신뢰도 계수는 .78, 어머니 온정적 양육행동의 신뢰도 계수는 .87,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의 신뢰도 계수는 .75로 나타났다.

사회적 행동

유아의 사회적 행동은 Gresham과 Elliott (1990)의 도구를 서미옥(2004)이 국내에서 타당화한 것을 참고하여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제작한 사회적 기술평정 척도(Social Skill Rating System for preschool level, SSRS)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가정 및 기관에서 보고되는 유아의 사회적 행동 양상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해당 척도의 부모 및 교사 응답을 모두 발췌하였다. 교사 평정용 척도는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장성, 협력성, 자기통제의 세 가지 하위영역을 포함한다. 부모 평정용 척도는 주장성, 협력성, 자기통제, 책임성의 네 가지 하위영역으로 측정되었으나 교사 평정용 척도와의 비교를 위하여 네 가지 하위영역 중 ‘책임성’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영역을 측정에 포함하였다. 부모 및 교사 척도의 문항은 유사한 행동특성을 측정하지만, 가정 및 기관의 상이한 맥락 특성을 고려하여 수정한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주장성’은 친사회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유아의 능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교사 평정용 척도에서 “놀이를 할 때, 다른 사람에게 같이 하자는 말을 한다.”와 같은 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부모 평정용 척도에서 “가게 점원에게 필요한 정보와 도움을 요청한다.”와 같은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협력성’은 각 맥락에서 유아가 상호작용하는 대상과 협력할 수 있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교사 평정용 척도에서 “게임이나 놀이를 할 때, 자신의 순서를 기다린다.”와 같은 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부모 평정용 척도에서 “장난감이나 집안 물건을 제자리에 둔다.”와 같은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자기통제’는 사회 적절한 방식으로 자신의 행동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유아의 능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교사 평정용 척도에서 “또래의 압력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을 한다.”와 같은 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부모 평정용 척도에서는 “게임이나 다른 활동에서 순서를 지킨다.”와 같은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척도는 5점 리커트형(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으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하위영역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지필식 설문조사를 통해 부모 평정용 응답을 수집하였고, 웹 조사를 통해 아동의 육아지원기관 교사로부터의 응답을 수집하였다. 부모 및 교사가 평가한 유아의 사회적 행동 점수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를 확인한 결과, 부모가 평가한 유아의 사회적 행동의 신뢰도 계수는 .77, 교사가 평가한 유아의 사회적 행동의 신뢰도 계수는 .81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연구대상의 전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Pearson의 상관 분석을 통해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가정 및 기관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사회적 행동 양상을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기 위하여 K-means 군집분석을 실시하였고, 성별 및 출생순위에 따른 군집 간 차이검증을 위하여 분산분석과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부, 모의 온정적 및 통제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행동 유형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가정 및 기관에서 보고되는 유아의 사회적 행동 양상 및 차이

유아의 사회적 행동 양상을 살펴본 결과, 표 2 와 같이 가정에서 보고되는 유아의 사회적 행동 수준($M = 2.31$, $SD = 0.31$)이 기관에서 보고되는 사회적 행동 수준($M = 2.51$, $SD = 0.36$)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척도로 동일한 유아의 행동을 측정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부모 및 교사가 보고한 사회적 행동 점수 간 상관은 상당히 낮았다($r = .20$, $p < .001$).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 검증을 시행한 결과, 가정 및 기관에서 보고되는 유아의 사회적 행동 수준의 차이는 유의

표 2. 유아의 사회적 행동 양상 및 가정-기관 간 차이 ($N = 1,104$)

	M	SD	Skewness	Kurtosis	t
사회적 행동(가정)	2.31	0.31	-.14	2.59	-16.35***
사회적 행동(기관)	2.51	0.36	-.80	3.23	

*** $p < .001$.

하였다($t = -16.35, p < .001$).

2. 가정-기관 사회적 행동 격차에 따른 군집 분석 결과 및 군집 간 차이검증 결과

가정 및 기관에서 보고되는 유아의 사회적 행동에서의 격차를 바탕으로 K-means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적 행동 점수를 모두 표준화하여 Z점수로 변환하였으며, 분석을 통해 총 4개의 군집을 확인하였다.

군집1은 가정에서 보고되는 사회적 행동($M = 0.91, SD = 0.03$)과 기관에서 보고되는 사회적 행동($M = 0.68, SD = 0.02$)이 모두 평균보다 더 높은 집단으로, 해당 유형에 포함되는 유아를 '전반적 유능형'으로 명명하였다. 군집2의 경우, 가정에서의 사회적 행동($M = 0.48, SD = 0.04$)은 높은 편이나 기관에서 보

고되는 사회적 행동($M = -0.91, SD = 0.04$)이 평균보다 낮은 집단으로, 해당 군집을 '가정-유능형'으로 명명하였다. 군집3에 속하는 유아들은 군집2에 속하는 유아들과 반대로 기관에서의 사회적 행동($M = 0.55, SD = 0.03$)은 높은 편이나 가정에서의 사회적 행동($M = -0.76, SD = 0.03$)이 평균보다 낮아 '기관-유능형'으로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군집4는 가정에서의 사회적 행동($M = -1.14, SD = 0.04$)과 기관에서의 사회적 행동($M = -1.40, SD = 0.06$)이 모두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 집단에 속하는 유아를 '전반적 저하형'으로 분류하였다. 확인된 4개의 군집에 속하는 유아의 빈도수는 '전반적 유능형' 336명(31.2%), '기관-유능형' 344명(31.2%), '가정-유능형' 232명(21.0%), '전반적 저하형' 162명(14.7%) 순서였다. 4개의 군집 간 사회적 행동 점수의 차이가

표 3. 유아의 가정-기관 사회적 행동 격차에 따른 군집분석 결과 및 군집 간 차이검증 결과 ($N = 1,104$)

	군집1 ($n = 366$)	군집2 ($n = 232$)	군집3 ($n = 344$)	군집4 ($n = 162$)	F	사후검증
	$M(SD)$	$M(SD)$	$M(SD)$	$M(SD)$		
가정	0.91(0.03)	0.48(0.04)	-0.76(0.03)	-1.14(0.04)	842.26***	1>2>3>4
기관	0.68(0.02)	-0.91(0.04)	0.55(0.03)	-1.40(0.06)	907.33***	1>3>2>4

주. 군집1: 전반적 유능형; 군집2: 가정-유능형; 군집3: 기관-유능형; 군집4: 전반적 저하형 사회적 행동 점수는 표준화된 Z점수 값임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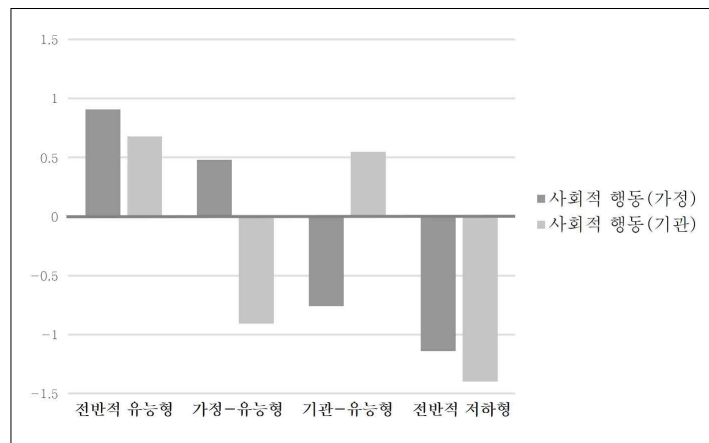


그림 1. 군집별 사회적 행동 양상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살펴보기 위하여 Scheffe의 사후검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가정에서 보고되는 사회적 행동에서 모든 군집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F = 842.26$, $p < .001$), 기관에서 보고되는 사회적 행동 또한 모든 군집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 = 907.33$, $p < .001$). 이상의 군집 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으며, 군집 별 사회적 행동의 구체적 양상은 그림 1과 같다.

3. 성별 및 출생순위에 따른 사회적 행동 군집 간 차이

성별 및 출생순위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행동 군집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χ^2 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적 행동 군집은 표 4와 같이 유아의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chi^2 = 37.56$, $p < .001$)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연구대상이 남아일 때, '기관-유능형(30.4%)에 포함될 가능성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전반적 유능형(27.1%), '가정-유능형(22.5%), '전

반적 저하형(20.0%) 순의 군집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연구대상이 여아일 때, '전반적 유능형(39.6%)에 포함될 가능성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기관-유능형(32.0%), '가정-유능형(19.4%), '전반적 저하형(9.0%) 순의 군집에 포함될 가능성이 나타났다. 남아와 여아 모두 '전반적 유능형' 또는 '기관-유능형'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상위 두 집단으로 나타났다(남아: 57.5%, 여아: 71.6%), 이 두 집단은 모두 기관에서의 사회적 행동수준이 높은 집단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유아들의 사회적 행동 수준이 대체로 가정보다는 기관에서 높게 보고됨을 알 수 있다. 반면 그 순서에서는 여아의 경우 '전반적 유능형'이 '기관-유능형'보다 많고, 남아의 경우 '기관-유능형'이 '전반적 유능형'보다 많아, 여아의 경우 기관에서만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높은 수준의 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비중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출생순위에 따른 군집 간 차이($\chi^2 = 8.85$, $p = n.s.$)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유아의 성별 및 출생순위에 따른 사회적 행동 군집 간 차이 ($N = 1,104$)

구분		군집1 ($n = 336$)	군집2 ($n = 232$)	군집3 ($n = 344$)	군집4 ($n = 162$)	합계 ($n = 1,104$)	χ^2
		명(비율)	명(비율)	명(비율)	명(비율)	명(비율)	
성별	남	154(27.1%)	128(22.5%)	173(30.4%)	114(20.0%)	569(100%)	37.56***
	여	212(39.6%)	104(19.4%)	171(32.0%)	48(9.0%)	535(100%)	
출생 순위	첫째	153(30.0%)	107(21.0%)	171(33.5%)	79(15.5%)	510(100%)	8.85
	둘째	167(36.2%)	96(20.8%)	140(30.4%)	58(12.6%)	461(100%)	
	셋째이상	46(34.6%)	29(21.8%)	33(24.8%)	25(18.8%)	133(100%)	

주. 군집1: 전반적 유능형; 군집2: 가정-유능형; 군집3: 기관-유능형; 군집4: 전반적 저하형

*** $p < .001$.

4. 부, 모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행동 군집 유형화에 미치는 영향

부, 모의 긍정적 및 통제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행동 군집을 예측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항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다. 앞선 분석에서 유아의 성별에 따

른 군집 간 유의한 차이가 확인됨에 따라 여아와 남아에 대하여 따로 다항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남아에 대하여 다항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부·모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행동 군집 유형화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다항로지

표 5. 부, 모의 양육행동이 남아의 사회적 행동 군집 유형화에 미치는 영향(전반적 유능형(군집1) 기준) ($N = 569$)

구분		군집2 (가정-유능형)			군집3 (기관-유능형)			군집4 (전반적 저하형)		
		<i>B</i>	<i>SE</i>	<i>Z</i>	<i>B</i>	<i>SE</i>	<i>Z</i>	<i>B</i>	<i>SE</i>	<i>Z</i>
독립 변수	온정적 양육(부)	-.01	.22	-.06	-.24	.21	-1.14	-.47*	.23	-2.06
	통제적 양육(부)	.31	.22	1.43	.46*	.21	2.16	-.09	.24	-0.39
	온정적 양육(모)	-.28	.25	-1.10	-1.31***	.25	-5.33	-1.50***	.27	-5.56
	통제적 양육(모)	-.27	.25	-1.08	-.64*	.25	-2.57	-.69*	.28	-2.49
상수		.84	1.43	0.59	6.47	1.40	4.63	9.53	1.55	6.13
LR χ^2		90.67***								
<i>df</i>		12								

* $p < .05$. *** $p < .001$.

스틱 모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LR $X^2 = 90.67$, $p < .001$). 가정 및 기관에서의 사회적 행동이 모두 평균보다 높은 집단인 ‘전반적 유능형’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높을수록 유아가 ‘전반적 저하형’ 집단에 속할 승산이 37.5% 감소($\exp(b) = .625$, $p < .05$)하였다. 또한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높을수록 유아가 ‘기관-유능형’ 집단에 속할 승산이 58.4% 증가($\exp(b) = 1.584$, $p < .05$)하였다. 마찬가지로, ‘전반적 유능형’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높을수록 유아가 ‘기관-유능형’ 집단에 속할 승산이 73.0% 감소($\exp(b) = .270$, $p < .001$)하였고, ‘전반적 저하형’ 집단에 속할 승산이 77.7% 감소($\exp(b) = .223$, $p < .001$)하였다. 반면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높을수록 유아가 ‘기관-유능형’ 집단에 속할 승산이 47.3% 감소($\exp(b) = .527$, $p < .05$)하고, ‘전반적 저하형’ 집단에 속할 승산이 49.8% 감소($\exp(b) = .502$, $p < .05$)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여아에 대한 다항로지스틱 분석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부·모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행동 군집 유형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항로지스틱 모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LR $X^2 = 60.97$, $p < .001$). ‘전반적 유능형’을 기준으로,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높을수록 유아가 ‘가정-유능형’ 집단에 속할 승산이 40.5% 감소($\exp(b) = .595$, $p < .05$)하였다. 남아의 경우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낮아질 때 유아의 가정 및 기관에서의 사회적 행동에 모두 영향을 미쳐 ‘전반적 저하형’에 속할 확률을 증가시켰던 것에 비해, 여아에게는 기관에서의 사회적 행동에만 영향을 미쳐 ‘가정-유능형’에 속할 확률을 높였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행동은 여아의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항로지스틱 모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LR $X^2 = 60.97$, $p < .001$). ‘전반적 유능형’을 기준으로,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높을수록 유아가 ‘가정-유능형’ 집단에 속할 승산이 40.5% 감소($\exp(b) = .595$, $p < .05$)하였다. 남아의 경우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낮아질 때 유아의 가정 및 기관에서의 사회적 행동에 모두 영향을 미쳐 ‘전반적 저하형’에 속할 확률을 증가시켰던 것에 비해, 여아에게는 기관에서의 사회적 행동에만 영향을 미쳐 ‘가정-유능형’에 속할 확률을 높였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행동은 여아의 사회적

표 6. 부, 모의 양육행동이 여아의 사회적 행동 군집 유형화에 미치는 영향(전반적 유능형(군집1) 기준)
($N = 535$)

구분			군집2			군집3			군집4		
			(가정-유능형)			(기관-유능형)			(전반적 저하형)		
			<i>B</i>	<i>SE</i>	<i>Z</i>	<i>B</i>	<i>SE</i>	<i>Z</i>	<i>B</i>	<i>SE</i>	<i>Z</i>
독립 변수	온정적 양육(부)		-.52*	.22	-2.40	-.27	.20	-1.37	-.25	.29	-.84
	통제적 양육(부)		.36	.24	1.50	.04	.21	0.17	-.16	.32	-.51
	온정적 양육(모)		-.13	.26	-0.50	-1.05***	.23	-4.57	-1.10**	.33	-3.31
	통제적 양육(모)		-.35	.27	-1.27	-.68**	.24	-2.83	-.63	.35	-1.83
상수			1.67	1.40	1.19	6.79	1.23	5.54	6.11	1.74	3.51
LR X ²			60.97***								
df			12								

* $p < .05$. ** $p < .01$. *** $p < .001$.

행동 군집 유형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경우, 온정적 양육행동이 높을수록 유아가 '기관-유능형' 집단에 속할 승산이 65.0%-감소($\exp(b)=-1.05 = .350, p < .001$)하였고, '전반적 저하형' 집단에 속할 승산이 66.7% 감소($\exp(b)=-1.10 = .333, p < .01$)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남아와 여아에게서 일치하는 결과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낮아질수록 가정에서의 사회적 행동 수준이 낮아지고, '기관-유능형' 또는 '전반적 저하형'에 속할 확률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반면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높을수록 유아가 '기관-유능형' 집단에 속할 승산이 49.3% 감소($\exp(b)=-.68 = .507, p < .01$)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에게서는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기관-유능형'과 '전반적 저하형'에 속할 승산을 모두 감소시켰던 것에 비해, 여아에게서는 '기관-유능형'에 속할 승산만을 감소시켜, 여아의 기관 내 사회적 행동 수준에는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이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기 아동의 사회적 행동이 가정과 기관에서 상이한 양상을 보일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 두 맥락에서 보고되는 사회적 행동 수준에서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고, 구체적 양상을 바탕으로 유아 집단을 분류하였다.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사회적 행동과의 관련성이 확인된 유아의 성별 및 출생순위에

따른 군집 간 차이를 검증하고, 부·모의 온정적 및 통제적 양육행동의 군집 예측 가능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행된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도출한 결론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 및 기관에서 보고되는 유아의 사회적 행동 수준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기관에서 보고되는 사회적 행동이 가정에서 보고되는 사회적 행동보다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일반적으로 유아가 가정에서의 규칙보다 보육 기관에서의 규칙에 더 잘 순응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한 선행연구(박호선, 한유미, 2001)와 일치하며, 사회적으로 맺는 대인관계가 상이한 가정과 기관에서 유아의 문제행동이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한 연구(Gross, Fogg, Garvey, & Julion, 2004; Shoda, Mischel, & Wright, 1994)를 지지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부모-자녀 간의 개별적이고 긴밀한 상호작용이 가능한 가정 맥락과 달리, 다수의 또래 및 교사와 함께 어울려 생활하는 기관에서는 규칙을 준수하고 자신의 정서와 행동을 적절히 조절하는 사회적 행동에 대한 요구가 더욱 두드러지므로, 기관에서의 사회적 행동 수준이 평균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가정 및 기관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사회적 행동 양상은 '전반적 유능형', '가정-유능형', '기관-유능형', '전반적 저하형'으로 분류되었으며, 군집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연구대상 유아의 사회적 행동은 전반적으로 기관에서 더 높은 수준을 보였지만, 가정-기관 간 격차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았을 때 그 양

상은 다소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이는 동일한 개인일지라도 그들이 처한 상황과 맥락에 따라 행동특성이 상이할 수 있음을 주장한 Cole 등(1997)의 연구를 지지한다. 즉, 유아의 행동특성은 개인 발달적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맥락적, 상황적 관점에서 또한 논의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유아의 사회적 행동을 보다 세밀하게 관찰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유아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다양한 관찰자로부터 정보를 얻음으로써, 특정 맥락에서 더 기능적이거나 또는 덜 기능적인 유아의 행동특성에 대한 총체적 평가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셋째, 유아의 성별에 따라 사회적 행동 격차 군집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연구대상이 남아일 때, 유아는 ‘기관-유능형’에 포함될 가능성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전반적 유능형’, ‘가정-유능형’, ‘전반적 저하형’ 순의 군집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연구대상이 여아일 때, 유아는 ‘전반적 유능형’에 포함될 가능성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기관-유능형’, ‘가정-유능형’, ‘전반적 저하형’ 순의 군집에 포함될 가능성이 나타났다. 즉, 가정 및 기관에서 모두 유능한 행동을 보이는 ‘전반적 유능형’에 속할 가능성은 남아보다 여아가 더 높았던 것과 달리, ‘전반적 저하형’에 속할 가능성은 여아가 더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여아의 사회적 행동수준이 전반적으로 더 높다고 보고해온 기존 선행연구(김은숙, 2013; Falbo & Poston, 1993)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한편 기관에서의 사회적 행동 수준이 평균보다 높은 ‘전반적 유능형’과 ‘기관-유능형’은 남아와 여아에게서 모두 상위 두 집단

으로 나타나, 성별과 관계없이 기관에서의 사회적 행동수준이 대체로 높음을 알 수 있다. 부모 외의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취학 전 유아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할 때, 교사 및 또래와 함께 생활하는 가정 외의 사회적 맥락에서 더욱 친사회적으로 행동하고자 하는 유아들의 특성이 결과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전반적 유능형’과 ‘기관-유능형’의 두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남아보다 여아에게서 더 높게 나타난 점을 통해 이러한 경향성이 대체로 여아들에게서 더욱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넷째,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행동 군집 유형화에 미치는 영향은 남아와 여아에게서 다르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낮을수록, 남아는 ‘전반적 저하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고, 여아는 ‘가정-유능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즉, 아버지가 따뜻하고 애정적인 양육을 제공하지 않을 때 남아의 사회적 행동이 가정 및 기관에서 전반적으로 저하된 것과 달리, 여아의 사회적 행동은 기관 맥락에서만 감소하였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높을수록, 남아는 ‘기관-유능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여아에게는 이러한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여아보다는 남아의 사회적 행동에 보다 포괄적인 영향을 미친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자녀 성별 간 상호작용의 측면에서 해석해볼 수 있다. 아동의 사회화에 있어 동성의 부모로부터 받는 영향이 더 크다(Lytton & Romney, 1991)는 점에서, 아버지 양육행동은 남아에게 더 폭넓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또한 오늘날의 이상적인 아버지상으로서 엄격하고 통제적인 아버지보다는 친근하고 애정적인 아버지의 역할이 요구됨을 확인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유아가 '개인 내 안정성 (intra-individual stability)'을 유지하며(Shoda, Mischel, & Wright, 1994) 폭넓은 맥락에서 균형적으로 기능하도록 함에 있어서 애정적이고 지지적인 지원자로서의 아버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시사한다.

다섯째,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행동 군집 유형화에 미치는 영향은 남아와 여아에게서 대체로 유사한 양상을 나타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결과는, 어머니의 온정적 및 통제적 양육행동이 낮을수록 유아는 '전반적 유능형'에 비해 '기관 유능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유아들은 가정 및 기관 모두에서 전반적으로 유능한 행동을 보이는 또래집단에 비해 가정에서의 사회적 행동 수준이 미흡하다. 자녀의 요구에 따뜻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어머니는 자녀가 사회적으로 유능한 행동을 보이더라도 이를 충분히 칭찬하거나 인정해주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와 같은 양육특성을 가진 부모와 함께하는 가정 맥락에서 유아의 행동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강화되기 어려울 것이다. 반대로 기관 환경에서는 충분한 격려와 보상을 제공하는 사회적 활동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특성이 있으므로, 유아의 행동이 보다 사회적으로 적절한 방식으로 강화될 수 있는 여지가 높다. 이에 어머니의 균형 있는 양육이 결여될수록, 해당 유아에게서는 기관이라는 특정 맥락에서만 유능한 행동특성이 관찰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의 영향이 아버지와는 달리 긍정적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와 같은 동양 문화권에서 부모의 통제를 관심과 애정의 표현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한 선행연구(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2004)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사회적 행동의 격차를 바탕으로 분류된 네 개의 군집이 유아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유아의 성별 및 출생순위 변수에 집중하였다. 하지만 유아의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유아의 기질적 특성을 함께 고려하지 못한 점은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맥락에서 자신의 정서와 행동을 적절히 조절하고,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행동이 유아의 기질적 특성에 따라 어떻게 발휘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려한다면 더욱 체계적인 조망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 연구는 취학 전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연구결과가 전체 유아기 혹은 아동기로 일반화될 수 없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의 유아를 대상으로 맥락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행동의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더욱 폭넓은 결과를 제시할 수 있길 제언하는 바이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유아의 사회적 행동특성은 언제나 고정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 및 기관과 같이 서로

다른 속성을 지닌 맥락에서 상이할 수 있음을 밝혔다. 특히 각 맥락에서 보고되는 유아의 사회적 행동격차를 바탕으로 군집을 나눔으로써, 개인 간 특성으로만 주목해오던 유아의 사회적 행동에 대해 ‘개인 내 특성’으로서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이는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이해를 가능케 하는 연구적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 연구는 유아의 사회적 행동 격차 군집을 예측하는 부·모의 역할을 검증하였다. 유아가 다양한 맥락에서 적응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함에 있어서 아버지는 온정적 양육행동이, 어머니는 온정과 통제의 균형 있는 양육행동이 중요함을 밝혔다. 특히 아버지의 경우, 온정적인 양육행동의 영향은 맥락을 초월하여 남아의 사회적 행동수준을 향상시킬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어머니의 경우 균형 있는 양육행동을 통해 남아와 여아 모두의 친사회적 행동을 향상시키며, 이러한 어머니의 영향은 특히 가정 맥락에서 두드러졌다. 이는 유아들이 사회적으로 유능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부모 역할의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유아의 사회성 발달을 도모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혜연 (2010). 유아의 지적 능력과 사회적 유능감과의 관계. *한국유아교육연구*, 12, 5-32.
- 고윤희, 김숙령 (2013).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 표현성 및 영유아 탄력성이 영유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성과 연령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33(2), 27-51.
- 김영선, 이 숙 (2015). 아동의 사회인구학적변인과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이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6(1), 163-185.
- 김성혜, 박찬옥 (2010). 일반유아, 저소득유아, 다문화유아의 사회적 목표와 사회적 전략 비교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14(4), 237-254.
- 김은숙 (2013). 유아의 성별과 놀이성 및 사회적 유능감의 관계. *한국영유아보육학*, 81, 91-110.
- 김종훈, 성지현 (2014).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가정 및 기관에서의 문제행동 개입차와 교사-유아 관계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34(6), 391-410.
- 나지혜 (2012). 어머니 및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도형미, 김소연 (2015). 유아의 의도적 통제가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교사-유아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8(4), 225-242.
- 박서연, 박성연 (2007). 어머니의 삶의 만족감 및 양육행동과 남, 여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간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14(2), 29-51.
- 박성연, 도현심 (1993). 성, 형제수, 출생순위 및 형제 성 구성에 따른 아동의 사회성. *아동학회지*, 14(2), 35-47.
-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2004). 한국 청소년의

- 부모자녀 관계와 성취에 대한 종단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0(3), 37-59.
- 배울미, 조광현 (2017). 유아의 사회적 기술과 정서조절능력의 관계. 유아교육학논집, 21(1), 633-653.
- 보건복지부. (2015). 2015년 보육통계자료. 세종:보건복지부.
- 서미옥 (2004). 한국판 취학전 아동용 사회적 기술 척도(K-SSRS: 교사평정용, 부모평정용)의 타당화 연구. 유아교육연구, 24(2), 223-242.
- 이한중 (2014). 아동의 주장성과 공감의 또래 관계에 미치는 영향. 교육과학연구, 46(3), 49-69.
- 이혜원 (2005). 교사용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평가척도 개발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다우리 (2015). 유아 책임감 형성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이은 (2007). 유아 행동문제에 대한 어머니와 교사의 평가 일치도: 어머니의 우울과 불안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진나 (2017). 부모의 우울 및 온정결여가 유아의 공격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아 자기통제의 조절효과. 유아교육연구, 37(3), 183-202.
- 정현빈 (2010). 유아의 사회적 기술이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복희, 이진숙, 이홍숙, 권희경 (1999). 한국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에서의 차원과 평가. 대한가정학회지, 37(10), 123-133.
- 채영문 (2009). 부부의 애착유형과 자녀양육방식의 결합형태에 따른 유아의 사회·정서발달.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민수, 김설화 (2017).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구조 관계. 열린부모교육연구, 9(4), 235-251.
- 최희정 (2011). 유아의 자기존중감과 사회적 유능감과의 관계. 한국유아교육연구, 13(2), 139-167.
- 홍종원, 최영희 (2015).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른 유아의 사회성 발달의 관계 연구. 상담심리교육복지, 2(2), 1-14.
- Ajzen, I. (1987). Attitudes, traits, and actions: Dispositional prediction of behavior i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0, 1-63.
- Braungart-Rieker, J., Garwood, M. M., & Stifter, C. A. (1997). Compliance and noncompliance: The roles of maternal control and child temperament.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8(3), 411-428.
- Campbell, S. B., Shaw, D. S., & Gilliom, M. (2000). Early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Toddlers and preschoolers at risk for later maladjustment.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2(3), 467-488.
- Chen, X. (1998). The changing Chinese family: Resources, parenting practices and children's social-emotional problems. In U.P. Gielen & A.L. Comunian (Eds.), *Family and family therapy in international perspective*. Trieste, Italy:

- Edizioni LINT.
- Claudy, J. G., Farrell, W. S., & Dayton, C. W. (1979). *The consequences of being an only child: An analysis of Project Talent data* (Final report). Palo Alto, CA: American Institutes for Research in the Behavioral Sciences.
- Cole, M., Engstrom, Y., & Vásquez, O. (1997). *Mind, culture, and activity: Seminal papers from the laboratory of comparative human cogn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rick, N. R. (1996). The role of overt aggression, relational aggression, and prosocial behavior in the prediction of children's future soci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5), 2317-2327.
- Denham, S. A. (1998). *Emotional development in young children*. New York, US: Guilford Press.
- Dishion, T. J., Eddy, J. M., Li, F., & Spracklen, K. (1997). Friendships and violent behavior during adolescence. *Social Development*, 6, 207-223.
- Falbo, T., & Poston, D. L. (1993). The academic, personality and physical outcomes of only children in China. *Child Development*, 64(1), 18-35.
- Gresham, F. M., & Elliott, S. N. (1990). *Social skills rating system manual*. Circle Pines, MN: American Guidance Service.
- Gross, D., Fogg, L., Garvey, C., & Julion, W. (2004). Behavior problems in young children: An analysis of cross informant agreements and disagreements. *Research in Nursing & Health*, 27(6), 413-425.
- Hartman, C. A., Rhee, S. H., Willcutt, E. G., & Pennington, B. F. (2007). Modeling rater disagreement for ADHD: Are parents or teachers biased?.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5(4), 536-542.
- Hubbard, J. A., & Coie, J. D. (1994). Emotional correlates of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Merrill-Palmer Quarterly*, 40(1), 1-20.
- Lytton, H., & Romney, D. M. (1991). Parents' differential socialization of boys and girls: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09(2), 267-296.
- Mehan, H., Cazden, C. B., Coles, L., Fisher, S., & Maroules, N. (1976). *The social organization of classroom lessons*. (Report No. 67). La Jolla, CA: Center for Human Information Processing.
- Raver, C. C., & Zigler, E. F. (1997). Social competence: An untapped dimension in evaluating Head Start's succes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2(4), 363-385.
- Rose, T. (2016). *The end of average: How to succeed in a world that values sameness*. London: Penguin Books.
- Rose-Krasnor, L. (1997). The nature of social competence: A theoretical review. *Social Development*, 6(1), 111-135.
- Sebanc, A. M. (2003). The friendship features of preschool children: Links with prosocial behavior and aggression. *Social Development*, 12(2), 249-268.
- Shaw, D. S., Gilliom, M., Ingoldsby, E. M., & Nagin, D. S. (2003). Trajectories leading to

- school-age conduct problems. *Developmental Psychology*, 39(2), 189-200.
- Shaw, D. S., Owens, E. B., Giovannelli, J., & Winslow, E. B. (2001). Infant and toddler pathways leading to early externalizing disorder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40(1), 36-43.
- Shoda, Y., Mischel, W., & Wright, J. C. (1994). Intraindividual stability in the organization and patterning of behavior: Incorporating psychological situations into the idiographic analysis of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4), 674-687.
- Snow, M. E., Jacklin, C. N., & Maccoby, E. E. (1981). Birth-order differences in peer sociability at thirty-three months. *Child Development*, 52(2), 589-595.
- Waters, E., & Sroufe, L. A. (1983). Social competence as a developmental construct. *Developmental Review*, 3(1), 79-97.
- 1 차원고접수 : 2018. 04. 24.
수정원고접수 : 2018. 05. 24.
최종게재결정 : 2018. 05. 24.

Children's Social Behavioral Gap in Home and Institution Contexts: Predictability of Mothers' and Fathers' Parenting Behavior

Eun, Sunmin

Kwon, So Jeong

Lee, Kangyi

Dep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focused on phenomenon that children's social behavior may appear differently across contexts, and attempted to categorize the children into groups according to aspects of their behavioral gap at home and institution. The specific aim was to verify the predictability of parental behavior on classification of these groups. Results indicated that there exist four groups of children- '*both competent*', '*home-competent*', '*institution-competent*', and '*both poor*'. In comparison with '*both competent*', the lower the father's affective parenting, the more likely the boys were included in '*both poor*' type, and the more likely the girls were '*home-competent*'. The higher the father's controlling parenting, the more likely the boys were '*institution-competent*', but this effect was not significant for girls. The lower the mother's affective and controlling parenting, the more likely the boys and girls both belong to '*institution-competent*' type.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characteristic of one's social behavior is not always displayed in a fixed form, but may be demonstrated differently across the contexts of unique attributes, such as home and institution. In addition, parenting behaviors are shown to predict not only the 'inter-individual' differences in child's social behavior, but also the 'intra-individual' differences according to contexts.

Keywords: home-institution, social behavioral gap, cluster analysis, affective parenting, controlling parenting